

#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

## 1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적는다.

-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 문화재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형태, 크기, 규모 등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쓰지 않는다.
-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단, 꼭 필요한 경우 풀이하거나 주석을 단다.

#### 1) 안내문 아래에 주석 달기

하나의 돌로 된 연꽃 봉우리의 보주\*를 엮어 놓았다.

(중략, 안내문 맨 아래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보주 : 부도의 윗부분 머리장식에 놓인 둥근 모양의 구슬

#### 2) 본문에 직접 풀어쓰기

정문이란 충신·효자·열녀들을 표창하기 위해 마을 입구나 집 문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을 말한다.

-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넣지 않는다.

### ○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 설화나 전설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재미나 유익한 정보가 있는 최근 이야기를 추가한다.

○ **문화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적는다.**

-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를 간략하고 쉽게 적는다.
- 만들어진 배경과 기능이나 용도를 설명한다.
- 관련 인물과 명칭의 유래를 설명한다.

○ **역사적 사실, 문법, 맞춤법, 어휘 등이 맞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문화재청 편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 중앙연구원 편찬),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 오자는 없는지, 맞춤법이나 문법이 틀린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 2

##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문화재 안내문 권고 구성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제목의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 풀이

### ○ 연혁, 유래 (관련이야기)

- 이 문화재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쓰였는지 등 문화재가 생겨난 배경과 발자취를 소개한다.

### ○ 역사적 · 문화재적 가치

- 역사 자료로서의 학문적 가치와 희소성을 설명한다. 국내외의 유사한 시대, 인물과 비교해 가치와 우수성을 드러낸다.

###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문화재에 관한 설화, 전설, 민담을 소개한다.

### ○ 주요 관람 포인트

- 건물, 조각, 탑 등의 중요하거나 독특한 요소를 설명하여 감상법을 안내한다.

### ○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 3

##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작성사례

### ○ 전주향교

#### 기존 문안

##### 전주향교 全州鄕校

사적 제379호

'향교' 풀이 필요

전주향교는 고려 공민왕 3년(1354)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원래의 위치는 풍남동(경기전 북편)에 있었다가 1603년(선조 36) 좌묘우사(左廟右社), 즉 **객사에서 남면하여 좌측에 문묘**(공자의 사당), 우측에 **사직단(社稷壇)**을 배치하는 옛 법도에 어긋난다하여 **부성 밖 동편인 지금의 자리로 다시 이전하였다**. 전주향교의 구조는 **전묘후학**으로 배향공간이 앞에 있는데, **대성전 중앙에 공자와 4성**, 그 좌우로 **공자문인 10철과 송조(宋朝) 6현**을 배향하였고, **동무와 서무에 중국 7현과 동방 18현**이 배향되어 있다. 대성전 뒤는 **강학공간**으로, 명륜당이 중앙에 있고 그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있다. 대성전과 명륜당 앞뜰에 400여년이 되었다는 은행나무가 각각 2그루씩 있다. 은행나무는 향교의 상징적 나무로, 은행나무가 벌레를 타지 않듯이, 유생들도 건전하게 자라 바른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유교 관련 어려운 용어, 전문용어를 풀이없이 나열하고 있다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 전주향교 全州鄕校 사적 제379호

향교는 국가에서 설립하여 유학을 가르치고 인재를 기르는 지방 교육 기관으로 지금의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시나 문장을 짓는 법과 유교의 경전과 역사를 가르쳤고 중국과 조선의 성현에게 제사를 올렸다. 갑오개혁 이후 교육 기능은 사라졌으며, 봄가을에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초하루와 보름에 향을 피운다.

전주향교는 고려 공민왕 때 세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처음에는 조선 태조의 영정을 모신 경기전<sup>사적 제11호</sup> 근처에 있었으나, 향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시끄럽다 하여 전주성 서쪽 황화대 아래로 옮겼다고 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뒤 지금 위치로 다시 옮겨 왔다.

전주향교에는 공자와 4성<sup>현인제, 자시, 증자, 맹자</sup>의 아버지를 모신 사당인 계성사가 있다. 전국에서 계성사가 있는 향교는 전주향교와 제주향교뿐이다. 전주향교에 있는 은행나무는 향교를 상징하는데, 은행나무가 벌레를 타지 않듯이 유생들도 건전하게 자라 바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있다.

○ 경주 문무대왕릉

기존 문안

### 경주 문무대왕릉

사적 제158호  
慶州 文武大王陵

앞쪽에 보이는 대왕암<sup>大王岩</sup>은 삼국 통일이라는 위업을 완성한 신라 제30대 문무대왕<sup>文武大王</sup>의 바다무덤<sup>海墓</sup>이다.

대왕암은 바닷가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길이 약 20미터의 바위섬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 조그마한 수중<sup>水中</sup> 못<sup>못</sup>이 있고 그안에 길이 3.6미터, 너비2.9미터, 두께 0.9미터 크기의 화장암<sup>火葬岩</sup>이 놓여 있다.

“내가 죽으면 화장<sup>火葬</sup>하여 동해에 장례하라. 그러면 동해의 호국룡<sup>護國龍</sup>이 되어 신라를 보호하리라.”라는 대왕의 유언에 따라 불교식 장례법으로 화장하여 유골을 이곳에 모셨다고 전한다. 대왕암은 가까이 아견대<sup>阿堅臺</sup>, 감은사<sup>甘雲寺</sup>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문무대왕의 거룩한 호국 정신이 깃들인 곳으로 이런 형태의 능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여기서 문무대왕의 유골을 뿌린 곳<sup>處</sup>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치는 적지 않는다

대왕의 유언에 따라 불교식 장례법으로 화장하여 유골을 이곳에 모셨다고 전한다. 대왕암은 가까이 아견대<sup>阿堅臺</sup>, 감은사<sup>甘雲寺</sup>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문무대왕의 거룩한 호국 정신이 깃들인 곳으로 이런 형태의 능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깊은 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없다

대왕의 기호(m)로 적는다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 경주 문무대왕릉 慶州 文武大王陵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은 삼국을 통일하는 큰 업적을 남긴 신라 제30대 문무왕<sup>文武王</sup>의 무덤이다. 이 능은 동해안에서 200m 떨어진 바다에 있는 수중무덤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무덤이다. 문무왕은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를 멸망시킨 태종 무열왕의 뒤를 이어 21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 세력까지 몰아내 우리나라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왕은 “내가 죽은 뒤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내라.”라고 유언하였다. 시도 때도 없이 바다를 건너와 노략질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왜구를 죽여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아들인 신문왕이 바다의 큰 바위 위에 장사를 지내고 그 바위를 대왕암<sup>大王巖</sup>이라 불렀다. 또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을 세우고 감은사<sup>甘雲寺</sup>라 이름 붙였다.

문무왕을 장사 지내고 1년 뒤 대왕암에서 바다의 용이 나타나 육으로 만든 허리띠를 주었으며, 바위섬에서 자라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릴 거라고 해서 따랐는데 그 피리가 만파식적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자연 바위인 대왕암에 올라 보면 사방으로 바닷물이 들끓는 수로처럼 보인다. 수로는 항상 잔잔하고 바닷물은 동쪽에서 흘러 들어와 서쪽으로 흘러 나간다. 잔잔한 수면 아래 넓적한 거북 모양의 돌이 덮여 있는데 이 안에 문무왕의 유골이 묻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 4

##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안 Q&A

- Q. 안내문을 쓸 때 대상은 누구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문장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 A. 안내문은 문화재를 관람하는 일반인이 읽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배경지식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장은 20~30자 내의 단문으로 간략하게 쓰도록 권하며, 긴 문장은 적절히 문단을 나누어 읽기 쉽게 합니다.
- Q. 참고한 자료에서 문화재의 크기를 자, 치, фун으로 표기했던데, 안내문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 A. 도량형(길이, 부피, 무게)은 미터법에 따르고 단위는 기호로 표기합니다. 규모를 설명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 두께 순으로 적습니다. 수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 참고로 한 자는 약 30.3cm, 한 치는 3.03cm, 한 фун은 0.375g입니다.
- Q. 문화재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 A.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국호와 왕명, 연도, 연호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 A. "조선 중종 때인 1530년"처럼 쓰기를 권장하며, 연호를 기재한다면 "조선 중종 25년(1350)"으로 작성합니다. 재위 기간은 생략해도 되며, 필요시 "고종(1213~1259 재위)"이라고 표기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 > 행정정보 > 문화재도서 > 간행물에서 검색 가능